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임 미 지¹⁾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 및 개인 환경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비교 및 학년간의 차이와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상관분석, *F*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5학년이 6학년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중·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중·하로 지각하는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 2010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육·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모아 일정한 교육 목적 아래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 정의된다. 즉,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크지만 지식 전달이라는 단순한 기능만 담당하는 곳만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단체 생활에서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접하게 되며, 개인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협동심과 함께 성취감, 바람직한 자아 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은영, 2009). 아동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의 규범, 질서를 익히는 등의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학교생활적응이라 하며,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은자, 2008).

초등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미영, 문혁준 2007).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학습과정과 상황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건들을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자

신이 그 여건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Bagewell, Newcomb, & Bukowski, 1998). Kurtines(1989)는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사회적응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고 하였으며, 김은선(2006)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이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학교의 영향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이은영, 2009).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방해하거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교에 대한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을 준다(김은선, 2006).

Sorensen(1993)은 아동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들은 저학년 때와는 달리 점차 주위의 기대가 높아져 많은 것을 요구받

게 되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심리 및 정서적인 불안이 높아지는 등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점점 낮은 연령으로 옮겨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압박이 더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심리적 변화에 민감한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한 이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6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였고 가정환경이 중·상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이 하위수준에 속한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의 결과(김서령; 2010, 이나미; 2006, 허지영; 2008)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상철(198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전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박인순(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집단이 부적응 집단에 비해 부모와 또래 관계, 교사관계가 친밀하였으며 일상생활습관이 잘 형성되고 더 긍정적이며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광영, 1999).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가족기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하거나(이미경, 1999; 이해령, 2000), 성적이나 성격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박소혜, 1995), 사회지지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김지혜, 1998)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김광영, 1999; 노미숙; 2003, 한은자; 2008)에서 아동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아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이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어떠한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질적 풍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조성연 외, 2009). 이와 관련해 Seligman와 Csikszentmihalyi(2000)는 무엇이 행복과 자율성 효과, 자기조절을 가능하게하고, 낙관성과 희망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이슈를 다루기도

하였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Diener(1984)의 개념이다. 그는 주관적 안녕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평가이며 이들은 객관적이고 외적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복감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의미한다.

아동기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근면성을 달성하는 시기로서 아동이 성장하여 바람직한 성인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아동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어린 시기부터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몰려 성장하고 있다(최혜영 외, 2009).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영하(2008)는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4가지 요인을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최혜영 외(2009)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행복감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행복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초등학생이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런 생활 감정을 의미한다(이정화, 2005). 이렇듯 행복감이 삶의 만족,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생활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고 할 때 행복감과 학교생활 적응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허지영, 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만큼 그리 많지 않다. 김동현(2006)의 연구에서는 낙관적인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 학습과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동원한다고 했으며, 낙관적과 비관적 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조옥경(1999)의 연구에서도 낙관적인 학생들이 교사와 교우관계 및 학업면에서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허지영(2008)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행복감도 높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느끼는 행복감이 덜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고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하(2005)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김혜원과 홍미애(2007)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미(2011)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정도) 및 행복감(자아특성,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란,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미연, 유안진, 1995). 또한 Lazarus와 Cohen(1977)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다수 사람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극심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나 지진 등의 재난 사건, 둘째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부모의 이혼 등, 소수인에게만 한정된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생활사건, 마지막으로 물건의 분실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거리인데 이 마지막 유형에 일상적 스트레스가 해당되며 이는 주요한 생활사건보다도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다(Holahan, Holahan, Belk, 1984).

아동후기인 4·6학년의 경우는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이므로 심리 및 정서적으로 매

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전통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조장된 경쟁심,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새로운 압력과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한은자, 2008).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정은희(2002)는 맞벌이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 연구하여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환경적 조건은 아동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에 관련된 변인 즉, 부모의 학력과 아동의 학년이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의 부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적응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개입을 모색할 필요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을 임의표집하여 이곳에 재학중인 5학년, 6학년 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 아동의 학년은 5학년이 208명(48.5%), 6학년이 221명(51.5%)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아가 215명(50.1%), 여아가 214명(49.9%)이었다. 대상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4.91세, 어머니 나이가 42.44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 260명(60.6%)과 어머니 287명(66.9%)으로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유’가 192명(44.8%), ‘무’가 237명(55.2%)으로 나타나, 취업생활을 하는 어머니보다 안 하는 어머니가 더 많았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수준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아동이 181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지각한 학교성적수준을 살펴보면 자신의 학교성적 수준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아동이 205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

표 1. 사회인구학적 배경(N=429)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별	남아	215	49.9
	여아	214	50.1
학년	5학년	208	48.5
	6학년	221	51.5
아버지 연령	40대 미만	21	4.9
	40~49세	355	82.8
	50세 이상	53	12.4
어머니 연령	40대 미만	88	20.5
	40~49세	312	72.7
	50세 이상	29	6.8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33	7.7
	대졸	287	63.9
	대학원졸	109	25.4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44	10.3
	대졸	305	71.1
	대학원졸	80	18.6
어머니 취업유무	유	192	44.8
	무	237	55.2
성적수준	중·하	258	60.1
	중·상	171	39.9
생활수준	중·하	195	45.5
	중·상	234	54.5

을 묻는 문항 외에 한국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척도,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척도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아동의 행복감 척도

는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2009)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행복감척도(HSSKC)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과외생활', '전반적 생활환경', '육구만족'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항수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64~.84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되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척도는 Rowilson과 Felner (1988)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 DHQ(Daily Hassles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민하영, 유안진(1998)이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소외감관련 친구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위협감관련 친구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항수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다.' 1점, '많이 받는다.' 2점, '약간 받는다.' 3점, '전혀 받지 않는다.' 4점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63~.92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김용래(2000)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항수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84~.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0년 5월 6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 시내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15학급의 5학년, 6학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각 초등학교에 연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질문지를 2010년 5월 6일 우편으로 배부하여 2010년 5월 11일에 우편 또는 직접회수를 완료하였다. 질문지는 총 438부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검사문항이 누락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42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내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

문지 자료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 및 개인 환경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성별 비교 및 학년간의 차이와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상관분석, F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에 따라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행복감을 본 결과 하위 변인 중 과외생활($t=2.7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아($M=2.56$, $SD=.69$)가 여아($M=2.38$ $SD=.66$)보다 과외생활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와의관계($t=-2.3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M=3.28$, $SD=.58$)가 여아($M=3.40$, $SD=.52$)보다 낮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t=-2.34$, $p<.0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아($M=3.14$, $SD=.58$)가 여아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 생활적응차이($N=429$)

변인	성별	남아 ($N=215$)	여아 ($N=214$)	t
		$M(SD)$	$M(SD)$	
행복감	자아 존중감	3.00(.51)	3.06(.47)	-1.17
	과외생활	2.56(.69)	2.38(.66)	2.78**
	전반적 생활환경	2.98(.63)	3.04(.59)	-.98
	부모와의 관계	3.28(.58)	3.40(.52)	-2.33*
	욕구만족	2.47(.67)	2.52(.63)	-.77
	학교생활	3.14(.58)	3.27(.56)	-2.34*
전체		2.95(.39)	2.99(.35)	-1.23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3.37(.55)	3.50(.48)	-2.63**
	소외감 관련친구	3.56(.55)	3.58(.49)	-.48
	학업관련	3.04(.70)	3.08(.64)	-.60
	위협감 관련친구	3.28(.71)	3.43(.59)	-2.40*
	교사관련	3.60(.62)	3.69(.55)	-1.51
	전체	3.36(.51)	3.45(.43)	-2.06*
학교 생활 적응	학교 환경적응	3.05(.63)	3.16(.55)	-1.86
	교사적응	3.00(.63)	3.12(.59)	-1.90
	수업적응	2.92(.60)	2.99(.61)	-1.15
	친구적응	2.87(.59)	3.05(.52)	-3.46**
	생활적응	2.99(.57)	3.13(.51)	-2.69**
	전체	2.97(.54)	3.09(.48)	-2.40*

$p<.05$ ** $p<.01$

($M=3.27$, $SD=.56$)보다 낮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행복감 전체에서는 남아($M=2.95$, $SD=$

.39)가 여아($M=2.99$, $SD=.35$)보다 행복감을 낮게 지각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부모관련($t=-2.63$,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M=3.37$, $SD=.55$)가 여아($M=3.50$, $SD=.48$)보다 낮게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위협감관련친구($t=-2.40$, $p<.05$) 하위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M=3.60$, $SD=.62$)가 여아($M=3.69$, $SD=.56$)보다 낮게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위협감관련 친구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t=-2.06$, $p<.05$)는 남아($M=3.36$, $SD=.51$)가 여아($M=3.45$, $SD=.43$)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 중 친구적응($t=-3.46$,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아($M=2.87$, $SD=.59$)가 여아($M=2.99$, $SD=.57$)보다 낮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에서 친구적응에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생활적응($t=-2.69$, $p<.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M=2.99$, $SD=.57$)가 여아($M=3.13$, $SD=.51$)보다 낮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에서 생활적응에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전체($t=-2.40$, $p<.05$)는 남아($M=2.97$, $SD=.54$)가 여아($M=3.09$, $SD=.48$)보다 낮게 지각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

스, 학교생활적응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년에 따른 행복감을 본 결과 하위 변인 중 자아존중감($t=2.8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10$, $SD=.53$)이 6학년($M=2.96$, $SD=.44$)보다 자아존중감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전반적 생활환경($t=3.95$, $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5학년($M=3.12$, $SD=.63$)이 6학년($M=2.90$, $SD=.57$)보다 전반적 생활환경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관계($t=2.7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41$, $SD=.55$)이 6학년($M=3.27$, $SD=.55$)보다 부모와의관계에서 더 높은 행복감을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t=3.26$, $p<.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30$, $SD=.58$)이 6학년($M=3.12$, $SD=.56$)보다 학교생활에서 더 높은 행복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전체($t=3.48$, $p<.001$)에서는 5학년($M=3.03$, $SD=.40$)이 6학년($M=2.91$, $SD=.34$)보다 더 높게 행복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학업관련($t=2.1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13$, $SD=.68$)이 6학년($M=2.99$, $SD=.65$)보다 높게 나타나 5학년이 6학년보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위협감관련친구($t=-2.07$, $p<.0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5학년($M=3.29$, $SD=.89$)이 6학년($M=3.42$, $SD=.62$)보다 낮게 나타나 5학년이 6학년보다 위협감관련친구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5학년($M=3.40$, $SD=.48$)과 6학

표 3. 아동의 학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차이($N=429$)

변인	학년	5학년 ($N=208$)	6학년 ($N=221$)	t
		$M(SD)$	$M(SD)$	
행 복 감	자아 존중감	3.10(.53)	2.96(.44)	2.82**
	과외생활	2.46(.72)	5.48(.65)	-.31
	전반적 생활환경	3.12(.63)	2.90(.57)	3.95***
	부모와의 관계	3.41(.55)	3.27(.55)	2.77**
	육구만족	2.51(.68)	2.48(.63)	.57
	학교생활	3.30(.56)	3.12(.56)	3.26**
	전체	3.03(.40)	2.91(.34)	3.48***
일 상 적 스 트 레 스	부모관련	3.46(.51)	3.41(.54)	.77
	소외감 관련 친구	3.53(.56)	3.61(.49)	-1.52
	학업관련	3.13(.68)	2.99(.65)	2.18*
	위협감 관련 친구	3.29(.89)	3.42(.62)	-2.07*
	교사관련	3.64(.56)	3.65(.61)	-.27
학 교 생 활 적 응	전체	3.40(.48)	3.40(.46)	.08
	학교 환경적응	3.21(.61)	3.00(.57)	3.82***
	교사적응	3.18(.60)	2.94(.60)	4.13***
	수업적응	3.07(.60)	2.84(.60)	3.96***
	친구적응	3.02(.61)	2.91(.51)	1.82
	생활적응	3.17(.55)	2.96(.53)	4.19***
	전체	3.14(.53)	2.93(.49)	4.17***

* $p<.05$ ** $p<.01$ *** $p<.001$

년($M=3.40$, $SD=.46$)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 중 학교환경적응

($t=3.8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5학년($M=3.21$, $SD=.61$)이 6학년($M=3.00$, $SD=.57$)보다 이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교사적응($t=4.1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5학년($M=3.18$, $SD=.60$)이 6학년($M=2.94$, $SD=.60$)보다 교사적응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수업적응($t=3.96$, $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07$, $SD=.60$)이 6학년($M=2.84$, $SD=.60$)보다 이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적응($t=4.19$,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학년($M=3.17$, $SD=.55$)이 6학년($M=2.96$, $SD=.53$)보다 생활적응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전체($t=4.17$, $p<.001$)는 5학년($M=3.14$, $SD=.53$)이 6학년($M=2.93$, $SD=.49$)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행복감의 하위 변인 중 과외생활($t=2.50$,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M=2.56$, $SD=.68$) 아동이 비취업모($M=2.39$, $SD=.68$) 아동보다 과외생활에서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행복감 전체는 취업모($M=2.98$, $SD=.38$) 아동이 비취업모($M=2.97$, $SD=.37$) 아동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는 부모관련($t=-2.40$, $p<.01$) 하위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

표 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차이(N=429)

변인	취업	유 (N=192)	무 (N=237)	t
		M(SD)	M(SD)	
행복감	자아 존중감	3.01(.51)	3.04(.47)	-.73
	과외생활	2.56(.68)	2.39(.68)	2.50*
	전반적 생활환경	2.97(.62)	3.05(.60)	-1.33
	부모와의 관계	3.36(.52)	3.32(.58)	.86
	욕구만족	2.52(.67)	2.47(.64)	.80
	학교생활	3.19(.55)	3.21(.59)	-.38
	전체	2.98(.38)	2.97(.37)	.32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3.37(.57)	3.49(.47)	2.40**
	소외감 관련친구	3.48(.58)	3.64(.46)	-3.19*
	학업관련	2.97(.71)	3.14(.62)	2.60**
	위협감 관련친구	3.29(.69)	3.41(.63)	-1.86
	교사관련	3.64(.62)	3.65(.56)	-.27
	전체	3.33(.52)	3.46(.42)	-2.86**
학교 생활 적응	학교 환경적응	3.13(.51)	3.08(.60)	.83
	교사적응	3.08(.59)	3.04(.60)	.65
	수업적응	2.96(.62)	2.95(.59)	.16
	친구적응	2.97(.63)	2.96(.58)	.19
	생활적응	3.06(.54)	3.06(.54)	.10
	전체	3.05(.51)	3.02(.52)	.51

* $p < .05$ ** $p < .01$

며 취업모($M=3.37$, $SD=.57$) 아동이 비취업모($M=3.49$, $SD=.47$) 아동보다 낮게 나타나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관련($t=-3.19$,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M=3.48$, $SD=.58$) 아동이 비취업모($M=3.64$, $SD=.46$) 아동보다 낮게 나타나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소외감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관련($t=-2.60$,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M=2.97$, $SD=.71$)의 아동이 비취업모($M=3.14$, $SD=.62$) 아동보다 낮게 나타나 학업관련 스트레스도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t=-2.86$, $p<.01$)는 취업모($M=3.33$, $SD=.52$) 아동이 비취업모($M=3.46$, $SD=.42$)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취업모($M=3.13$, $SD=.51$) 아동과 비취업모($M=3.08$, $SD=.56$) 아동 모두 학교환경적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취업모($M=3.05$, $SD=.51$) 아동이 비취업모($M=3.02$, $SD=.52$)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높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행복감에서는 과외생활을 제외한 자아존중감($t=-6.05$, $p<.001$), 전반적생활환경($t=-4.88$, $p<.05$), 부모와의관계($t=-4.44$, $p<.001$), 욕구만족($t=-3.10$, $p<.01$), 학교생활($t=-2.74$,

표 5.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N=429)

변인	가정생활	중·하 (N=195)	중·상 (N=234)	t
		M(SD)	M(SD)	
행복감	자아 존중감	2.88(.46)	3.15(.48)	-6.05***
	과외생활	2.39(.64)	2.53(.71)	-2.46
	전반적 생활환경	2.86(.57)	3.14(.61)	-4.88*
	부모와의 관계	3.21(.55)	3.44(.53)	-4.44***
	육구만족	2.39(.59)	2.58(.69)	-3.10**
	학교생활	3.12(.55)	3.38(.58)	-2.74**
	전체	2.85(.34)	3.07(.37)	-6.54***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3.39(.52)	3.47(.52)	-1.56
	소외감 관련친구	3.54(.52)	3.59(.52)	-1.00
	학업관련	3.06(.63)	3.06(.70)	-.07
	위협감 관련친구	3.36(.64)	3.35(.67)	-.06
	교사관련	3.66(.54)	3.63(.62)	-.46
	전체	3.38(.48)	3.42(.48)	-.92
학교 생활 적응	학교 환경적응	3.01(.54)	3.18(.63)	-3.02**
	교사적응	2.96(.58)	3.14(.63)	-3.12**
	수업적응	2.81(.60)	3.07(.58)	-4.52***
	친구적응	2.87(.51)	3.05(.59)	-3.35**
	생활적응	2.93(.55)	3.17(.52)	-4.56**
	전체	2.92(.53)	3.13(.53)	-4.15***

* $p < .05$ ** $p < .01$ *** $p < .001$

$p < .01$)로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감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중·하로 가정생활수준을 지각한 아동이 중·상으로

로 가정생활수준을 지각한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 변인 중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하($M=3.21$, $SD=.55$)로 지각한 아동과 중·상($M=3.44$, $SD=.53$)으로 지각한 아동 모두 가장 높은 행복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행복감 전체($t=-6.54$, $p < .001$)는 중·하($M=2.85$, $SD=.34$)로 지각한 아동이 중·상($M=3.07$, $SD=.37$)으로 지각한 아동보다 행복감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가정생활수준을 중·하($M=3.06$, $SD=.54$)로 지각하는 아동과 중·상($M=3.06$)으로 지각한 아동 모두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가정생활수준을 중·하($M=3.38$, $SD=.48$)로 지각하는 아동이 중·상($M=3.42$, $SD=.48$)로 지각하는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 하위 변인 중 가정생활수준을 중·하($M=3.01$, $SD=.54$)로 지각하는 아동과 중·상($M=3.18$, $SD=.63$)으로 지각하는 아동 모두 학교환경적응 하위 변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환경적응($t=-3.01$, $p < .01$), 교사적응($t=-3.12$, $p < .01$), 수업적응($t=-4.52$, $p < .001$), 친구적응($t=-3.35$, $p < .01$), 생활적응($t=-4.56$, $p < .01$)에서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 전체($t=-4.15$, $p < .001$)는 가정생활수준을 중·하($M=2.92$, $SD=.53$)으로 지각한 아동이 중·상($M=3.13$, $SD=.53$)으로 지각한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한 학교성적 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아동이 지각한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행복감은 학교성적 수준을 중·하($M=3.27$, $SD=.54$)로 지각한 아동과 중·상으로 지각한 아동($M=3.43$, $SD=.55$) 모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 변인 중 과외생활을 제외한 자아존중감($t=-8.31$, $p<.001$), 전반적 생활환경($t=-3.07$, $p<.01$), 부모와의 관계($t=-2.99$, $p<.01$), 욕구만족($t=-2.65$, $p<.01$), 학교생활($t=-4.71$, $p<.001$)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감의 전체($t=-5.88$, $p<.001$)는 학교성적수준을 중·하($M=2.89$, $SD=.45$)로 지각한 아동이 중·상($M=3.10$, $SD=.38$)으로 지각한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학교성적수준을 중·하($M=3.64$, $SD=.56$)로 지각한 아동과 중·상($M=3.66$, $SD=.62$)으로 지각한 아동 모두 교사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관련 하위변인을 제외한 부모관련($t=-2.18$, $p<.05$), 소외감관련친구($t=-1.98$, $p<.05$), 학업관련($t=-3.39$, $p<.05$), 위협감관련친구($t=-2.61$, $p<.01$)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t=-2.81$, $p<.01$)는 학교성적수준을 중·하($M=3.35$, $SD=.49$)로 지각하는 아동이 중·상($M=3.48$, $SD=$

표 6. 아동의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차이($N=429$)

변인	성적수준	중·하 ($N=258$)	중·상 ($N=171$)	t
		$M(SD)$	$M(SD)$	
행복감	자아존중감	2.88(.45)	3.25(.46)	-8.31***
	과외생활	2.51(.70)	2.41(.66)	1.51
	전반적 생활환경	2.4(.59)	3.12(.63)	-3.07**
	부모와의 관계	3.27(.54)	3.43(.55)	-2.99**
	욕구만족	2.43(.58)	2.59(.74)	-2.65**
	학교생활	3.10(.56)	3.36(.55)	-4.72***
	전체	2.89(.34)	3.10(.38)	-5.88***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3.39(.55)	3.50(.48)	-2.18*
	소외감 관련친구	3.53(.54)	3.63(.62)	-1.98*
	학업관련	2.97(.68)	3.19(.62)	-3.39**
	위협감 관련친구	3.29(.67)	3.46(.62)	-2.61**
	교사관련	3.64(.56)	3.66(.62)	-.27
	전체	3.35(.49)	3.48(.44)	-2.81**
학교 생활 적응	학교 환경적응	3.03(.59)	3.22(.59)	-3.33**
	교사적응	2.97(.59)	3.20(.62)	-3.94***
	수업적응	2.80(.58)	3.19(.56)	-6.85***
	친구적응	2.88(.54)	3.10(.57)	-3.99***
	생활적응	2.93(.51)	3.27(.53)	-6.67***
	전체	2.93(.49)	3.19(.51)	-5.42

* $p<.05$ ** $p<.01$ *** $p<.001$

.44)로 지각하는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에서는 학교성적수준을 중·하로 지각한 아동은 학교환경적응($M=3.03$, $SD=.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으로 지각한 아동은 생활적응($M=3.27$, $SD=.53$) 변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학교환경적응($t=-3.33$, $p<.01$), 교사적응($t=-3.94$, $p<.001$), 수업적응($t=-6.85$, $p<.001$), 친구적응($t=-3.99$, $p<.001$), 생활적응($t=-6.67$, $p<.001$)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는 학교성적수준을 중·하($M=2.93$, $SD=.49$)로 지각한 아동이 중·상($M=3.19$, $SD=.51$)으로 지각한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 학년,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과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01 \sim 2.76$), TOL는 0.1이상($.33 \sim .98$)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Model 1

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모의 취업여부,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을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행복감, Model 3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학교생활적응의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 취업유무, 가정생활 수준, 학교성적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14$, $p<.01$), 학년($\beta=-.17$, $p<.001$), 가정생활 수준($\beta=.15$, $p<.01$), 학교성적 수준($\beta=.22$,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였다.

2단계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2%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beta=.11$, $p<.05$), 학년($\beta=-.17$, $p<.001$), 어머니직장유무($\beta=-.10$, $p<.05$), 가정생활 수준($\beta=.14$, $p<.01$), 학교성적 수준($\beta=.19$, $p<.001$)이며,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에서는 소외감관련 친구스트레스($\beta=.21$, $p<.01$), 교사관련 스트레스($\beta=.14$,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행복감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33%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행복감의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학년($\beta=-.07$, $p<.05$), 어머니 취업유무($\beta=-.07$, $p<.05$), 자아존중감($\beta=.26$, $p<.001$), 전반적 생활환경($\beta=.20$, $p<.001$), 학교생활($\beta=.41$, $p<.001$)이었으며 이때, 성별, 가정생활 수준, 학교성적

표 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대한 회귀분석(N=429)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생활적응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¹⁾	.14	.14**	.12	.11*	.04	.04
	학년	-.17	-.17***	-.18	-.17***	-.08	-.07*
	어머니 취업유무 ²⁾	-.07	-.07	-.11	-.10*	-.08	-.07*
	가정생활 수준	.15	.15**	.14	.14**	.04	.04
	학교성적 수준	.22	.22**	.19	.19***	.04	.04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13	.13	.06	.01
	소외감관련 친구			.21	.21**	.02	.02
	학업관련			.01	.01	-.04	-.05
	위협감관련 친구			-.06	-.07	.04	.05
	교사관련			.12	.14**	.02	.03
행복감	자아존중감					.27	.26***
	과외생활					-.03	-.04
	전반적 생활환경					.17	.20***
	부모와의 관계					-.07	-.07
	욕구만족					-.02	-.03
	학교생활					.37	.41***
F		10.46***		12.99***		34.59***	
R ²		.15		.27		.60	
ΔR^2				.12		.33	

* $p < .05$ ** $p < .01$ *** $p < .001$

1) 남=0, 여=1

2) 유=0, 무=1

수준, 소외감관련 친구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

과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행복감의 경우 과외생활,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의 하위변인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행복감 전체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느끼는 행복감에는 차이가 없다는 Hilleras, Aguero 와 Winblad(2001), 노미숙(2003), 강영하(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느끼는 허지영(2008), 강영하(200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행복감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도 남아와 여아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서령(2010), 이나미(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아보다 여아가 학교생활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행복감 전체에

서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위변인인 학업관련 스트레스, 위협감관련친구 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따른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위협감관련친구 스트레스를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올리거나, 못살게 구는 친구에게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생활적응은 전체에서도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력이 낮다는 이은영(2009)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보다 학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행복감 하위 변인 중 과외생활에서는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지각한다고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없다는 김현옥(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과외생활 하위변인에서는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만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인 관계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과외생활 하위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상 이상의 가정생활수준의 아동이 중 이하의 가정생활수준의 아동보다 더 높은 행복감과 더 높은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행복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연화(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서도 행복감의 하위변인인 과외생활,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교사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상 이상으로 학교성적수준을 지각하는 아동이 중 이하로 학교성적수준을 지각하는 아동보다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과 학교성적 수준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여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아동의 자존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적, 가정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학교생활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수준),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행복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Seligaman와 Csikszentmihallyi(2000)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 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했으며, 최은주(2001)와 허지영(2008)의 행복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한다. 사회인구학적 하위변인에서는 학교성적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학년, 가정생활수준, 성별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부모를 비롯한 주변에서의 기대가 학업성적에 초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이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는 소외감관련친구 스트레스와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변인에

서는 학교생활에서 지각한 행복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전반적 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관계가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며 학교생활에서의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으로 행복감과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환경과 연령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생활수준과 성적 수준을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인 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인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하여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과 학교에서는 행복감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 과외생활, 전반적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욕구만족, 학교생활 면에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여 주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심리 태도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영하 (2005). 초등학교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5(2), 1-21.
- 강영하 (2008). 초등학교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21(2), 159-177.
- 김광영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

- 정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동현 (2006).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서령 (2010).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논총, 17, 3-32.
- 김은선 (2006).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특성,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지혜 (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옥 (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123-142.
- 김희중 (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미숙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하영,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소혜 (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인순 (2008).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유상철 (1983).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나미 (2006).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미경 (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수미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은영 (2009).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혜령 (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42.
- 정은희 (2002). 맞벌이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비교연구.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2-15.
- 조옥경 (1999). 낙관적-비관적 성향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주 (2001).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 한국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3-11.
- 한미현, 유안진 (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은자 (2008).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지영 (2008). 초등학교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Bage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Hilleras, P. K., Aguero-Torres, H & Winblad, B. (2001). Factor influencing well-being in the elderl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4:361-365.
-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 (1984). Adjustment in aging: The roles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y Psychology*, 3, 315-328.
- Kurtines, C, A (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I. Altman, & J.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 89-127). New York: Spectrum.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Seligaman, M. E. P & Csikszentmihal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orensen, E. S.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1차 원고접수 : 2011. 4. 8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Effects of Child's perceived happiness and Daily Stres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Focusing on Students in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i Ji Yim

Hyuk Jun Moon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hild's perceived happiness and daily stres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survey of 429 students in Grade 5, 6 from several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was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5.0 softwar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gender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al environmental variables. of the subjects. In addition, t-test, correlation analysis, F-test,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examining school life adjustment differences by gender and grades, 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 in terms of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der, girls' adaptability to school life is higher than boys'. (b) in terms of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rades, 5 graders' adaptability to school life is higher than 6 graders'. (c) in terms of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standard of living of his/her family, children perceiving it as the middle and high level are more adaptable to school life than children perceiving it as the middle and low level. (d) Child's perceived happiness has the most powerful effect on his/her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the variables considered in this study.

Key words : Happiness, Daily Stress, School Life, Adjustment